



불교 이래서 좋다

김사엽

한양대 기계공학과 3학년

통일순례단서 '참나' 확인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다. 하지만 내가 불법(佛法)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교에 와서다.

의 평안만을 찾는 종교라고 생각했던 불교가 이토록 합리적이고 실천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내가 불법(佛法)을 접한 것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 서울지부 정보통신부장직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들이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불교계가 쏟고 있는 힘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풍문이나 전설이나 소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경전의 내용에도 이끌리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깨닫고 보고 파악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비록 불교와의 인연이 다소 가볍게 시작되긴 하였지만 나는 불자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어디서든 불교인 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처님, 그리고 함께 수행 정진하는 도반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인터넷으로 입학 준비 '끝'

종립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맞이 분주

명성여고 입학예고 일주일 앞 둔 강지혜 학생. 지혜는 18일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해 고등학교를 다니며 참여하고 싶은 교내 동아리를 고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입학식을 치르고 반 배정과 담임 선생님을 소개를 받고 반 친구를 사귀다 보면 어느새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버린다.

사이버 강의로 학교에 대한 모든 것 알려줘

진로·불교상담, 봉사활동 등 다양한 '클릭'

하나씩 꼼꼼히 챙긴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게시판 글을 통해 확인한다.

그 다음으로 지혜는 선배 언니가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시켜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방문, 고등학교 교과목 강의를 미리 받으며 개학을 준비한다.

지혜 같은 예비 고등학생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홈페이지를 열고 둔 불교계 종립학교는 모두 16곳이다. 서울 명성여고 홈페이지는 학교와 선생님 소개, 학사 일정 안내, 동문회 활동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사이버강의를 설치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온라인 통해 신뢰 확보, 오프라인 연계

봉사 활성 위해 '문화재 애호단' 구성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이하 청소년협회)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실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청소년협회는 18일 신년사업 발표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를 받아 청소년들의 신앙, 이성, 진학 문제 등을 풀어보는 청소년 상담실을 올 하반기부터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담도 실시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청소년협회는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애호단' 등 봉사단을 하반기까지 구성한다. 문화재 전문가와 문화재 보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 이들의 봉사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소년협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국제캠프를 7월에 열고 외국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의 참가도 유도할 생각이다.

광동학원, 신입교원 대상 연수 실시

광동학원(이사장 일민)은 20~23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25명 신입교원을 대상으로 행정, 직무 및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불교연수를 실시했다.

46년 운허 스님이 설립한 광동학원은 현재 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광동여자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산하 시설로 보유하고 있다.

양정수련관, 프로그램 수강자 모집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3, 4월 사회교양프로그램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댄스 음악강좌, 어학 정보강좌, 건강 생활체육강좌, 청소년 어린이강좌 등이다.

명작 비디오 파일

공각기동대

시로우 마사무네의 만화를 원작으로 1995년에 제작된 82분짜리 애니메이션. 오시이 마모루가 감독을 맡았다.

네트워크 시대

생명 정체성 다뤄

대장 쿠사나기와 그의 파트너 바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새로운 생명체(?) '인형사' 등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계화하는 인간과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는 기계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사이버 생명체인 인형사가 쿠사나기에게 던지는 질문인 '내가 네트워크인가? 네트워크가 나인가?'는 자못 불교적이고 존재론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사뵈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허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소생령) (빙의령) (속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 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뚜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